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 I)

전형유형 ()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논제 I>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 전 세계 중산층의 폭발적 부상, 급속한 인구 증가가 한데 결합하여 지구를 위협할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이 감소하고, 멸종하는 동식물이 증가하며,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석유 독재가 강화되었으며 기후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뒤섞인 세계적 추세에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삶의 질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에너지원, 윤리를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명칭은 ‘코드 그린(Code Green)’이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미래 사회의 투자 수익과 성장을 위해 모두가 도전해볼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 변화를 찾아보려면 산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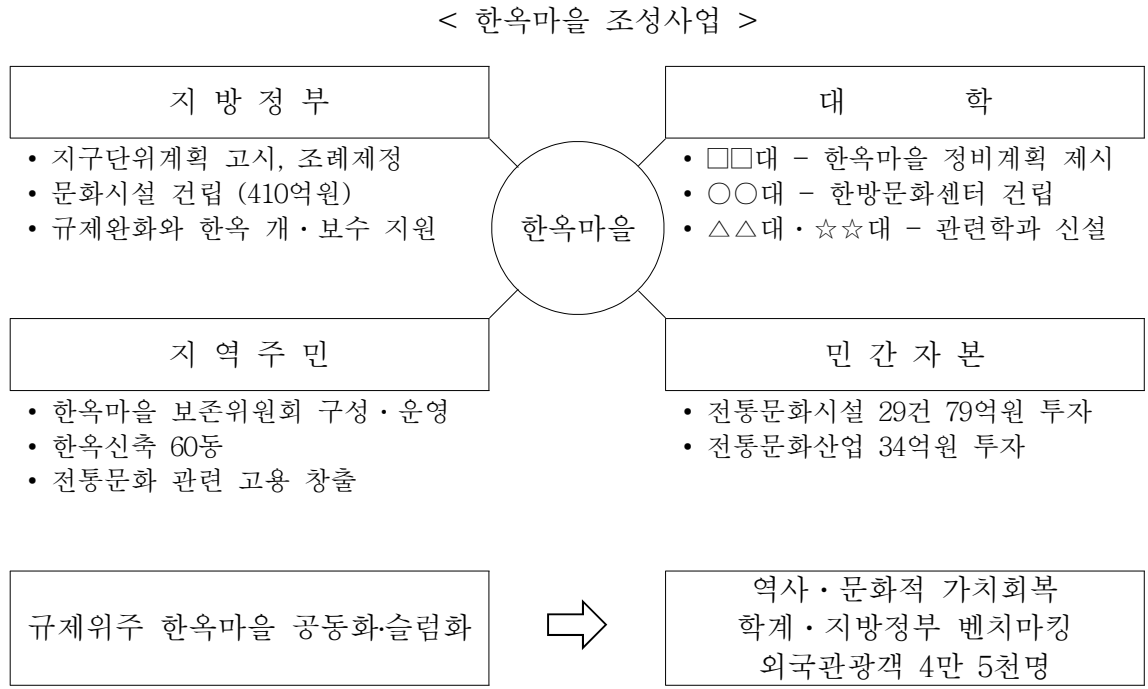
[나]

현재 지구가 처한 곤경을 악한 세력, 즉 개인적인 재물 쌓기에 열심인, 음흉한 경제계 거물이 빚어낸 작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경쟁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세계 속에서 기업의 거대한 성장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 붓는 부지런한 자본가에게 보상을 하는 체계가 빚어낸 자연스런 산물이다. 현재 전 지구가 처한 곤경을 ‘나쁜’ 기업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기업가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윤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복리[well-being]도 고려하는, 이른바 지속가능 경영의 3대 축, 즉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 자본가들의 노력은 영구작동기계를 만들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목적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현 경제체제가 자신의 기초를 침식해가다가 결국 생태계 붕괴 및 자원 고갈과 함께 무너져 내린 뒤 새로운 녹색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도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바로 현 체제의 놀라운 적응력 때문이다.

[다]

일동의 정신은 긴장하였다. 더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자미며, 소동파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오 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 학교장의 연설을 듣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찌찌(분명히) 알아듣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 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쪽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라]



[마]

게키야스[激安: '염가'라는 의미] 열풍은 자동차 산업에도 몰아쳤다. 2009년 초에는 혼다의 하이브리드차인 '인사이트'가 동급 보통 차량과 가격 차이를 대폭으로 줄인 189만 엔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시작하며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보다 대폭 낮아진 가격에 고연비 차량이라는 장점 때문에 주문이 쇄도했다. 여기엔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입 후 13년이 지난 자동차를 폐차하고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면 25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6월에는 도요타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가 경차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정책은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업계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 형태로 '에코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에코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로 지역 특산물, JR[일본철도] 등의 교통 이용권 그리고 상품권 등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에코포인트가 적용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판매가에서 10~20%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바]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나'라는 개인적 의미보다는 '우리'라는 집합적 의미를 강조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가정이나 마을로부터 크게는 '지구 공동체'라는 말에서 보듯이 세계 전체를 일컫을 수도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이 많았다. 그 예로서 조선 시대의 '향약(鄕約)'이 있다. 향약의 네 가지 덕목을 열거하면, '착한 것은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 주며[過失相規], 예의로써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患難相恤]'이다. 향약을 통해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해 나갔다. 향약은 곧 공동체의 도덕률이자,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증거이다.

<논제 I-1>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담고 있다. 두 견해의 차이를 밝히고, 각 견해의 근거를 논술하시오. (201자 이상 300자 이하: 20점)

<논제 I-2>

제시문 [다], [라], [마], [바]의 핵심 내용을 찾아 각각 간략히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제시문 [가]에서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601자 이상 700자 이하: 30점)